

‘경제·자족도시’로 거듭나는 파주시 신도시 맞춤형 대중교통 DRT 도입·그린뉴딜 사업 강화 등



1 2023년 개통을 앞둔 GTX 2 마을버스 준공영제 버스

경기 파주시는 10년 새 인구가 32.8% 증가해 현재 47만2천260명(2021년 6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 증가율이 평균 2.2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파주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는 ‘교통’이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면 달을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착공되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광역버스 3개 노선 개통, 천원택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12월부터 운영신도시에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인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DRT)’ 9대를 운행한다. DRT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시간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는 공공버스다. 경기도에서는 첫 운행 지역으로 파주시가 선정됐다.

교통 복지 확대부터 자족도시로 ‘성큼’

시는 GTX-A 시대에 대비해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교통개선책을 시행해왔다. 2023년 개통을 앞둔 GTX-A는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고속도심 철도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파주에서 서울과 성남, 용인, 동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 노선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삼성~동탄과 연결돼 파주~고양~삼성~동탄으로 이어진다. 시는 또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운영신도시 인근에 46만㎡ 규모의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개방형으로 조성되는 메디컬클러스터 내에는 아주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및 의료·바이오연구센터, 바이오 융복합단지, 배후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아왔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음압 텐트를 보건소에 설치하고, ‘차량형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제작했다. 이동형 선별검



2



3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4 파주시청 청사 5 최종환 파주시장이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소는 양압식 검체 부스를 탑재한 차량으로, 교통 소외지역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

시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전담할 ‘남북평화협력 전담(TF)팀’을 설치하고 평화협력과를 신설했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 중 첫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됐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했다. 임진강 거북선 복원과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임진강 평화공돌라 개장,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조성, 판문점 선언 및 혜음원지 관광 자원화 등으로 관광 경쟁력도 높였다.

그린뉴딜 사업 강화·농업인 소득지원 정책 확대

통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과 친환경 연료전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는 파주는 ‘수소에너지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2025년까지 연료전지 발전소 270MW, 수소 충전소 5기, 수소추출시설 2곳을 구축하는 수소에너지 중장기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파주 수소 융복합 테마도시’ 구현을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소법에 기반한 수소 조례도 신설한다. 또 농업인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 등도 확대 시행한다. 시는 농촌환경 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공익직접지불금은 올해 안에 약 137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 기본소득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농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매달 5만 원씩 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지역경제는 침체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미래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4



5

마치 호수 위를 걷다

마장호수

마장호수가 관광휴양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길이 220m의 출렁다리 투명발판을 걸을 때는 마치 호수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수 있고, 카누와 카약을 타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호수변으로 조성된 둘레길(3.5km)과 캠핑장, 전망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과 지척인 파주 광탄면의 마장호수에서 자연 속 휴식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